<<이 논문은 1981년도(추가)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독 어 음 의 음 성 학 적 고 찰 (1)

윤 종 선

<<내 용>>

1. 머 리 말
2. 모음의 경우
3. 자음의 경우
4. 표음의 문제

1. 머 리 말

우리나라에서 독어음에 관한 연구가 활발치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로 볼 수 있다. 서독 자체에서도 넓은 의미의 독어학 연구가 국내에서보다는 오히려 인근국에서의 연구가 더 활발했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사정이 우리나라에도 교원양성등의 분야로 많은 영향을 직접 끼쳤다고 생각된다.

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몇몇 동학들이 해외에서 귀국했고, 본격적으로 독어학에 관한 연구활동도 엿보였지만, 그 상당수가 현대 언어학적인 연구로 방향을 돌렸다. 따라서 독어의 어음자체, 이를 테면 조음 음성학적인 물리연구나 분석비판은 한낱 Lautlehre 나 Hochlautung 이라는 가벼운 말을 쓰고 어느 구석에서 잠자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한편 영어음 연구에 관한 저서는 필자가 알기로 음성학 자체만도 7종이 되는데 독어의 경우는 한 권도 없는 실정이고 있다해도 대학강단

에서 담당할 분이 너무 적은 현실이다. 대학에서 영어음성학 강의는 활발한데 독문과나 독어교육과에서 음성학 강의가 필요치 않다고 역설하는 사람이 많은가 하면, 국어학 연구등의 분야에서는 종종 독어음 연구에 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독어 음성연구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하기보다는 거의 계몽적인 입장에서 어음지식이 없어서 빚어내는 몇몇 사례를 열거 분석하고 음성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자 한다.

2. 모음의 경우

(1) { i } Daniel Jones 는 기본모음 1번 { i }를 설명하는 보기로서 독어의 Biene { bí:nə }를 들었다. 그의 정의에 의하면 혀가 모음임을 유지하면서 되도록 앞으로 그리고 높게 올라가는 소리라 했고, 입술은 평순 (spread) 이라 했다.[1] 이 정의에서 나오는 결과를 달리 말하면, { i }음은 외관으로 보아 결코 점잖게 낼 수 없는 소리이며 구강내의 공간이 좁고 공명실이 극도로 위축되어 닫힌(geschlossen) 소리의 극을 이룬다는 뜻이다.

노래를 부를 때 높은 음에 해당하는 가사의 모음이 하필이면 극단의 닫힌 소리일 때 가수는 제소리를 내기 힘들며 따라서 잡음이 섞이든지 잡음을 피하기 위해 모음의 발음을 흐리거나 발성을 조절하는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가사나 감정의 전달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찬송가 "천성을 향함" (원곡 Annie Laurie, 합동 75장)은 이 점에서 작사 내지 역시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앞에 있으니 . . . .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 . . .

다 장조의 mi음이 한결같이 {i}음에 결부되어 있어 이는 애국가의 어느 음보다 더 높은 음계이며, 대중이 이 음을 제대로 부를 수 없게 되어 있고, 찬송가라는 회중상대의 의미에서 졸작일 수 밖에 없다. 대중가요 "국예사의 첫사랑"은 가요로서는 어떤지 모르나 발성면에서 볼 때 가수가 상당 수준의 역량을 과시한 곡이라 생각한다.

산에 올라 외치는 '얏호'는 우수한 작품이다. 울림이 좋고 전달이 멀리까지 되기 때문이다. 행여 '이우'나 '우이'가 아닌 이유는 그만큼 충분한 발성상의 생리적인 이유가 숨어있는 것이다. 작사나 작곡, 시의 번역, 개역을 할때 이 같은 어음원리는 엄밀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2) { e } 독일인이 한국인에게 독어음을 가르치는 경우 잘 따르지 못하는 모음 중 제일 유명한 것이 {e}의 장모음이다. 독일인으로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 e: }를 해보라면 완강하게(?) { ɛ: }로 소리내는 것이 납득이 어렵다는 것이다. { e: } 는 우리나라의 호남 충남 지방에서는 잘 쓰이는 소리이며 다른 지역에서도 평시 남을 조롱하거나 감탄적인 표현등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나서 다시 제2외국어를 배우다 보면 본능적인 긴장 때문에 곧잘 내던 국어음을 못내는가 하면 영어음을 제대로 배웠고 그 결과로 독어음의 모음이 영어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잠시 독어모음의 열린 소리와 닫힌 소리의 구분에 관하여는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모음이 열리고 닫힌 구분은 조음할 때의 혀의 위치로 대별하는 법이거니와 독어음의 경우는 그 특이성 때문에 장단관계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한 소음이 장단으로 짝을 이룰 때 독어의 경우는 { a }를 제외하고는 장모음이 단모음보다 늘 높은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장모음이면 닫힌 소리이고 단모음이면 열린 소리가 되는 것이다.[2]

독어음 {e:}는 그 조음위치부터가 Jones 의 기본모음 2번 {e} 와 같은 자리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본모음 1번 {i}의 바로 아래이면서 장모음이고, 장모음이면서 열린 소리{ɛ:}가 아니고 닫힌 소리 {e:}인 것이다. 호남방언에서 '그란디'(그런데)라 할 때의{i} 는 독어음 {ei}와 놀랄 만큼 흡사하다. 대체로 영남방언이 심한 사람은 이 음을 내지 못하고 {i:}로 대체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기타 지역의 방언에서는 대체로 {e:}를 {ɛ:}로 내는 경향이 현저하다.

독일인도 {e:}와 {ɛ:}를 바꾸어 소리내는 경우가 있다. Bitte sehr ! 에서 sehr 를 {zɛ:r} ,{zɛɐ }로 내기 좋아한다. Städte, Fakultät, Universität 의 강음절에서 {ɛ: }를 {e:} 로 내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대중화되어 있어 학계에서 구별하여 소리내기를 권장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인된 변칙이어서 별도의 연구가치가 충분히 있는 소재이다.[3]

독문법의 wenn 조건문에서 가정의 부문장에 강변화 동사의 접속법 2식을 쓸 자리에 조동사 würde 를 첨가하고 본동사를 원형으로 쓰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ɛ:}를 {e:} 로 읽는 버릇으로 인한 것이다. 즉 강변화 동사중 변음하는 것 중에는 직설화법형 또는 제1식 접속화법형과 발음상 구별하기 곤란한 sähen -sehen, gäben-geben, läsen-lesen, träten-treten, nähmen-nehmen, ...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 분석형으로 바뀐다 : Ob er auch unbeweglich stillhalten würde, wenn der andere ihn anspuken würde oder wenn einer ihm eine Ohrfeige gäben würde? (Luise Rinser)[4]

영화 주제가 Edelweiß 를 우리가 부를 때 첫 모음 {e:}를 듣기 거북할 만큼 열린 소리로 낸다. 어린이 합창단이 부르는 겨울 나그네의 '보리수'는 참 아름다운데 da steht ein Lindenbaum 에서 이 어린이들의 국적이 독일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님이 나타난다. 'steht' 의 {e:}가 {ɛ:}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슬라브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심하게 나타난다.

(3) {a:}와 {ɑ:} ,{o:}와 {ɔ:} 위에서 말한 바 우리가 일차로 영어를 배우고 나서 독어를 배우는 경우 조음상 혼동되는 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영어음에서 {ɑ:}는 기본모음 5번 {ɑ}에 가까운 반면 독어음의 {a:}는 4번 {a}에 가깝다. 우리나라 사람이 schlagen {ʃla:gən}을{ʃlɑ:gən}으로 발음할 때 필자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제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독어의 {a:}는 국어의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독어음은 우리의 경우 다른 외국어음의 지식이 없이 직접 배울때 상당히 정확한 발음을 습득한다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 영미인이 서독의 Bayern 지방에서 독어를 배우면 이 점에서 환영을 받는다. 그 지역에서는 거의 {ɔ}에 가까운 dunkles {a} 를 즐겨 쓰므로 어색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o:}와 {ɔ:}의 경우에 도 위의역설이 적용된다. 필자는 여기에서 1977년에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독어음의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소개함으로써 서술의 근거에 대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o:} 발음을 표준독일어의 발음과 독일인의 발음에서 비교해 볼 때에 혀의 위치로 보아 더 낮고 입술을 옆으로 벌려서 발음하기 때문에 표준독일어의 {o:}발음 및 독일인의 {o:} 발음과는 차이가 있

다. Formanten 의 위치상으로 비교해 볼 때에 한국인의 {o:} 발음은 독일인의 {o:}발음과 한국어 {ㅗ}발음의 중간에 나타나는데 그 점은 표준독일어 {ɔ}의 위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간주된다(중략). {o:}음은 턱의 각도와 두 입술의 사이를 현재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좁히고 입술엔 힘을 주어 내밀면서 발음해야겠으며, 한국어 {ㅜ}발음시의 조건하에서 {o:}를 발음해야 겠다.

(4) {ə} 히브리말로 schwa 라고 하는 이 중간모음이 우리에게는 늘 토론의 대상이 된다. 영어에서 국어의 {ㅣ}와 같다고 배웠으니까 {ㅣ}로 읽음이 옳다는 것이다. 영미계통의 독일인 2세라면 그렇게 발음하기를 즐길 것이다. 그러나 독어음으로서의 {ə}는 강음이 없는 접두사나 어미에서 나는 소리이므로 실제로는 빠른 대화에서 또는 어음환경에 따라 흐려지거나 탈락하는 수까지 있다. 탈락하는 경우에는 앞뒤의 자음이 동화작용까지 일으킨다.

háben	{ha:bən}	{ha:bn}	{ha:bm}
Rücken	{rýkən}	{rýkn}	{rýkŋ}

독어의 {ə}를 국어로 표기하라면 {ㅔ}로 하는 수 밖에 없고, 실제의 소리도 이에 가장 흡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Liebe 에서 어미음{e}가 ABCDE의 E라서 국어의 {ㅔ}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음질이 그러하며 노래를 부를 때는 더욱 그러하다. 굳이 국어의 {ㅣ}가 좋겠다는 주장은 다음의 질문으로 그 불합리함이 들어나게 된다.

가) eine, einer, einer, eine는 어떻게 구별하여 읽는가?

나) meine Liebe 와 meiner Lieber(pl.) 는 어떻게 구별하여 읽는가?

다) behaupten, bearbeiteten 은 어떻게 읽는가?

라) begehen, gehobene Sprache는 어떻게 읽는가?

(5) {- ər } 와 { ɐ } 1976-77년에 독일어에 관한 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Duden 출판사에서 6권으로 된 새 사전이 나왔다. 편집진용은 발음해설 첫머리에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선언을 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관계인사 간에 적지 않은 파문까지 일었던 모양이고, 이는 다시 관계당국에 비화되어 고교용 교과서의 표음문제에 까지 파급된 것으로 안다. 그들이 채택했다는 발음표기의 원칙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 이 표기법은 오늘날에 와서 과도했다고 느껴지는 무대발음(Bühnenlautung)이 아니라, 현대독어의 초지역적인 표준발음(Standardaussprache)으로서 언어의 현실에 가까운 관용규범이다.

나. 원칙적으로 국제 음성협회 지정의(IPA) 부호를 썼는데 이 부호는 정서법에 의거하는 통속표기보다 정확하여 학술적인 요망이나 외국인 사용자의 희망에 부응한다.

이상에서 가.의 무대발음이 합당치 못하다는 설명은 그들이 이미 계속 발간하고 있는 Der Groβe Duden 의 10권 시리즈에서 제4권 문법편이나 제6권 발음편의[7] 설명과 비교하면 본질적으로 대동소이한 것으로, 결코 획기적인 혁신이 아닌 것이다. 또 IPA 의 부호가 통속표기보다 좋다는 설명은 해묵은 것으로, Der Groβe Duden 은 처음부터 문법편과 발음편에서는 IPA 의 표기를, 제5권 외래어편에서는 통속표기 Volkstümliche Umschreibung)를 채택하고 있어 자체통일도 못해온 형편이다.

필자는 여기서 문제의 "표준발음"이라는 또 하나의 유형에 대하여 그 정체를 해명하고, 발음표기의 본질적인 체계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통속표기와 IPA 이 두가지 표기법의 차이에 관하여 필자는 의도적으로 Der Groβe Duden 초기판(1962)의 발음편에서 해설(Einführung) B항을 근거로 설명하고자 한다. 새 사전 Das groβe Wörterbuch의 발음해설에서 부당하다는 통속표기라 함은 정서법에 의한 것이라 했다. 음표문자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정서법에서 잘 알려진 대표음의 철자를 그대로 쓰되, 구분을 위한 별도의 부호(diakritische Zeichen)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S음의 경우 S이외에 Š, Ś, S̄ 등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표기법은 영미에서 발간된 사전에 의외로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철자와 발음부호라는 상대적 체계가 미약하여 본국인에게는 무난하나 외국인에게는 불편하다.

IPA의 표기문자는 우리가 영어를 통하여 상식의 한도에서나마 알고 있는 터이고, 일본이나 우리의 독어사전은 종래의 Der Groβe Duden과 같이 간소화된 체제를 사용해 왔다. 간소화라 함은 예컨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나 형태소 앞의 후두폐쇄음 {ʔ}의 표기를 생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따라서 편집진용에 큰 변화가 없는 Das groβe Wörterbuch 가 위의 나.에서 말하는 IPA의 음표문자를 채택... 운운은 Duden 자체가 여지껏 써온 것을 새삼스럽게 강조했을 뿐인데, 이는 Siebs[8] 같은 다른 계통의 표기방식을 두고 이른 것이거나 책을 새로 발간하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버릇일 수 밖에 없다.

(2) {-ər}, {-ɐ}표준발음 위의 가.에서 {-ər}는

무대발음이니 현실성이 없고 {ʁ}가 표준발음이라서 좋다는 듯이 말했는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 필자의 눈에는 양자가 다 본질적으로 무대발음이요 표준발음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ʁ}음이 이미 대부분의 무대에서까지도 대중화된 사실을 알면서도 {-ər}를 {-ɐ}로 고쳐 표기하기를 주저해 온 것 뿐이다. Der Große Duden은 현재까지 문법이나 발음편에서 발음해설자체를 크게 두가지로 구분해왔다. 우선 표준음(Hochlautung)과 비표준음(Nichthochlautung)으로 양분하고, 다시 이 두음을 무대발음과 중용표준음(Gemäßigte Hochlautung)으로 비표준음은 회화발음(Umgangslautung)과 과장발음(Überlautung)으로 각각 양분했다. 네가지중에서 무대발음의 체계가 지금까지 채택되어 온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의 {ə}음은 원래가 중용표준음에 속해있던 것인데 다른 몇가지의 실용표기와 더불어 무대발음의 {-ər}등에 대치시킨 것이고, 이를 표준발음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 무대발음의 체계에 중용발음 몇 가지를 바꾸어 넣고 "표준발음"의 대접을 받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우리네 독어인구에는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교재나 사전도 따로 있어야 되겠다.

처음부터 어음표기는 최대공약수이다. 우선 음소에 의한 표기(Phonemische Schrift)로 기틀을 잡고 구별이 불가피한 부분만 위치에 따른 이음을 별도로 표기키로 한 것이다. 한 음소 /X/를 어음환경에 따라 dich {dɪç} 와 Dach {dax} 정도로 구별하되, /K/의 경우 대기음이 섞인 것 (Kam {ka:m}) 과 아닌 것 (Buchs {bʊks})의 구별 무시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미세한 이음(Allophone)의 뉘앙스를 살리는 enge(phonische) Transkription 에 대하여 weite(phonemische) Transkription 이 대응한다. 필자는 여기서 이론과

실제에서 우수성을 자랑하는 권위저서의[9]한 귀절을 인용하고 독자의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넓은 음소표기가 실용성이 있고 특히 외국어 강의에 적합하다.'

주

1) Jones : *An Outline of English Phonetics*, 1960, p.31-35.

2) H. Wangler : *Grundriss einer Phonetik des Deutschen*, Marburg, 1967, p. 91.

3) Der Groβe Duden : *Grammatik*, 1966, p.55.

4) 허 형근 : 독일문학, 제 11집, 근대 독일어의 발전경향, p.103

5) 6)의 실험에 동원된 5명의 독일인 남자.

6) 조 동섭(전남대) : 1977년 서강대 대학원(석사) 논문 5,6항

7) 1962년도판 (10권이 각기 다른 관점으로 판을 거듭함).

8) Siebs : *Deutsche Aussprache*, Berlin,1969.

9) Eugen Dieth : *Vademekum der Phonetik*, Bern 1968, p.44.

<<동국대 독문과 교수>>

---

* 이 논문은 인쇄의 편의상 음성표시인 대괄호 대신에 { }를 사용함.